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침공을 억제한 스위스 방위전략의 특징과 교훈*

김 용 빈**

1. 서 론
2. 스위스의 무장중립과 방위체제
3. 제2차 세계대전시 스위스 방위전략
4. 독일군 침공 억제의 실효성
5. 결론 : 한국에 주는 교훈

1. 서 론

중부유럽에 위치한 작은 나라인 스위스는 북쪽은 독일, 서쪽은 프랑스, 남쪽은 이탈리아, 동쪽은 오스트리아 및 리히텐슈타인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면적은 41,293km²로 한국(9.9만 km²)의 42%에 해당되는 작은 내륙 국가로 국토의 약 60%가 산지이다. 2011년 인구는 764만여 명으로 독일계 65%, 프랑스계 18%, 이탈리아계 10%, 기타민족으로 구성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해병대군사학과 부교수

되어 있다. 언어도 독일어 63.7%, 프랑스어 20.4%, 이탈리아어 6.5%, 그 외 로망슈어가 있다. 종교는 가톨릭 41.8%, 개신교 35.3%, 이슬람교 4.3% 등이다.¹⁾

이러한 환경의 스위스는 역사적으로 영세중립국(Permanent Neutral State) 정책을 구사하여 주변국으로부터 침공을 억제하였다. 특히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교전당사국인 독일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침공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이를 억제하면서 스위스연방의 독립을 보존하였는데, 이는 단지 중립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국제사회가 스위스를 포함하여 네덜란드, 벨기에 등 여러 국가들을 중립국이라고 인정하였어도 전시 같은 개념으로 중립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의 유명한 종군기자였던 쉬러(William L. Shirer)는 “네덜란드군은 독일군의 쉬운 먹이가 될 정도로 약하다. 그러나 스위스는 부수기 어려운 호두같은 상태이지만, 독일군은 침공을 시도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²⁾라고 하여 중립국 스위스가 침공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기간 중 독일, 때로는 이탈리아까지 눈앞에 가시같은 스위스를 침공하기 위해 수차례 공격계획을 수립하면서 은연중에 정보를 흘려보냈다. 이러한 움직임을 인지했던 스위스는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의지를 천명하며 억제전략(Deterrence Strategy)을 구사하여 독일군이 스스로 침공을 포기하게 만들었다.³⁾ 그것은 스위스가 병력이 많고 자원이 충분해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스위스는 주변의 강대국들에 비하여 인구는 물론 상비군사력도 대단히

1) 외교통상부, 『2011 세계각국편람』, 서울: 마스타 상사, 2011, 374쪽.

2) Stephen H. Halbrook, *Target Switzerland: Swiss Armed Neutrality in World War II*(MA: Da Capo Press, 2003), p.vii.

3) 히틀러의 침공야욕을 꺾은 스위스의 전략을 안성호는 ‘고슴도치 국방’으로 표현하고 있다.(안성호, 「음·면·동 풀뿌리자치와 향방전력 강화방안: 스위스의 2차대전 ‘고슴도치 국방’의 교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4권 제1호(통권 77호), 2012, 50~54쪽.

작은 국가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군대인 민병군(Militia)제도를 갖고 있고, 외부세력이 침공하면 그들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워 승리하였던 전통이 있으며, 주변국들은 이러한 스위스를 쉽지 않은 상대로 간주하였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알프스(Alps)산이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야포진지가 위장상태로 구축되어 있고, 정상에는 위장된 방공진지와 병력이 배치될 진지도 있으며, 지하에는 탄약고와 정비공장, 민방위시설 등이 있다. 고속도로변에는 콘크리트로 설치된 대전차 장애물도 있다. 동원된 민병군은 전차는 물론 헬기와 전투기도 조종한다.⁴⁾ 정부가 승인한 가정에는 개인화기와 실탄이 합법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사격은 전 국민의 스포츠라고 할 정도로 대중적이며, 수많은 사격클럽이 전국에 있어 주말에는 사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세중립국임에도 항시 전쟁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며 교전국으로부터 침공을 억제하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인 것이다. 그러나 영세중립국 스위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화, 관광분야와 동원 및 예비군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군의 침공을 억제할 수 있었던 스위스의 무장중립과 방위체제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전쟁에 대비하는 교훈을 도출하고 우리의 방위전략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4) Diesbach, Roger de. *L'Esercito(Army): É una Creazione Delle Edizione Mondo*(Bern: Buri Druck SA, 1988). 이 책자는 이탈리아어로 작성돼 있으며, 스위스 민병군의 훈련과 동원, 전투준비관련 내용을 기사와 사진 등 다수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2. 스위스의 무장중립과 방위체제

1) 스위스의 중립국 기원과 발전

국제법에 의하면 교전국이 중립국을 침공해서도 안 되지만 중립국도 교전국에 유리하게 병력과 장비를 통과시켜서는 안 되고, 어느 교전국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제반 활동도 제한하고 있다.⁵⁾ 중립국은 조약에 의하여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다른 국가의 전쟁에 참가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타 국가에 의하여 자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이 보장된다.

이탈리아의 피초니(Camille Piccioni)는 중립을 “전시에 다른 국가들과의 사이에서 직·간접적으로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의 상태”라고 하고 있고⁶⁾, 『전쟁의 연구(A Study of War)』의 저자인 라이트(Quincy Wright) 교수는 “전쟁이 발발하면 이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택하는 특별한 정책”⁷⁾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국이 중립국으로 선언하고 국제사회가 특정한 조약으로 중립국임을 인정해도 자위를 위한 국방력을 갖추지 못하면 강대국의 이익 판단 결과에 따라 희생양이 될 수 있다. 1940년 4월 독일군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하였으며, 5월에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침공한 것이 바로 그 사례이다. 특히 제1·2차 세계대전에서 두 번씩이나 독일군에게 침공당한 경험이 있는 벨기에는 힘없는 중립이 국가의 독립을 보장해주지 못

5) Dietrich Schinder, *Neutral Powers and Persons in War on Land*, “Convention Respecting the Right and Duties of Neutral Powers and Persons in Case of War on Land”, *The Laws of Armed Conflict*(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8), pp.942~944.

6) Jean F. Freymond, “Neutrality and Security Policy as Components of the Swiss Model”, *Swiss Neutrality and Security*(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pp.177~178.

7) Quincy Wright, *A Study of War*(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pp.135~136.

한다는 인식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시 가입하였으며, 수도 브뤼셀에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스위스가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는 경제적 요인과 지정학적 환경, 열강들의 국제정치 논리 등 종합적 고려에 의한 것이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국토가 작고 대부분이 산악과 호수 등 농경지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역사적으로 식량부족에 시달렸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세 유럽의 각 지역에 많은 용병(傭兵, Mercenary)을 파견하였다. 지정학적인 환경은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열강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또한 국가구성도 민족은 독일계, 프랑스계 및 이탈리아계로 다양하고, 종교 역시 이슬람, 구교(Catholic)와 신교(Protestant) 등 다양하게 구성된 국가이다. 이러한 종교와 민족구성은 발칸반도의 유고연방 사태가 보여주듯 어떠한 원인만 주어지면 언제라도 내전으로 발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립제는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여건과 종교, 언어 및 민족의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

스위스의 중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1515년 이탈리아의 마리냐노(Marignano) 전투에서 프랑스군에게 대패한 후 프랑스와 영구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립을 채택하면서 그 기원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

이후 1798년 나폴레옹이 스위스를 침공하여 15년간 통치하였다. 당시 나폴레옹은 “나의 앞에 스위스 중립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나폴레옹 자신이 스위스의 중립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위스도 외세가 침공하였을 시 신뢰할 만한 자체 방위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립이란 오로지 이웃하는 강대국의 자비와 인정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⁹⁾

8) Christian Muhlethaler, *Switzerland and its Tradition of Promoting Peace, Journal of Islands Studies*, Vol.IV. 2001, p.11.

9) Kurt R. Spillmann, “Swiss Security Policy in a Changing Environments”,

1815년 나폴레옹 패배이후 유럽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개최된 비엔나 회의에서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등은 스위스를 영세중립국으로 합의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하였다.¹⁰⁾ 이것은 스위스가 중립국이 되기를 원하였던 이유도 있었지만, 당시 유럽 열강들의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추구하는 국제정치논리가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도 하다.¹¹⁾

1848년에 제정된 연방헌법은 스위스가 중립국임을 명시하였으며, 이후부터 연방헌법은 19~20세기 유럽에서 발생하였던 전쟁에서 스위스가 중립국으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렇게 중립국이 되었지만 스위스가 원하는 형태는 인접국이 ‘중립국 스위스’를 존중해서 침공해주지 않기를 바라는 소극적 중립국이 아니라 이른바 ‘무장중립국(Armed Neutrality)’이다. ‘무장(Armed)’의 의미는 동원준비태세와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대를 편성하고 장비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스위스의 4대 방위체제

스위스는 중립국이지만 총력방위 개념아래 민병군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군사방위 외에 민방위, 경제방위, 정신방위의 4대 방위를 기본으로 한다.¹²⁾

첫째 군사방위는 민병군(Militia)이 주축이 된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미국의 윈게이트(George Wingate) 장군은 “스위스에는 정규군이 없고,

Swiss Neutrality and Security: *Armed Forces, National Defence and Foreign Policy*(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p.208.

10) Kate Morris and Timothy J. White, *Neutrality and the European Union: The Case of Switzerland*, *Journal of Law and Conflict Resolution*, Vol.3(7), September 2011, p.108.

11) Freymond, *op. cit.*, p.180.

12)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세계동원의 역사』, 서울: 전광인쇄정보, 2004, 833쪽; 육군본부, 『서독,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동원제도』, 서울: 육군인쇄공창, 1986, 77~78쪽.

국방은 동원된 민병군이 주축이 된다. … 인구는 420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전국의 3,656개 사격협회와 21.8만여 명의 회원은 매년 2,100만여 발의 실탄을 사격한다.”¹³⁾라고 하였다. 연방헌법은 직업군대의 보유를 금지하며 원칙적으로 민병군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민병제도를 발전시키게 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다. 1291년 최초로 스위스가 연방을 시작하였을 당시 식량이 부족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420~1700년 기간 약 200만여 명의 용병이 유럽각지에 파견되었다.¹⁴⁾ 모든 남성은 병역의무를 지며¹⁵⁾,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에 의해 다른 의무를 부과한다.¹⁶⁾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병역을 수행할 수 있다. 스위스는 현재 합동군 25,620명이 공군부대와 국경경비 등으로 보직되어 있고, 전시에는 민병군 17.1만여 명이 국가방위 임무를 수행한다.¹⁷⁾ 평시 합동군 중 3,700여 명은 현역으로 알프스 요새지 경계와 초계비행대대 조종사, 훈련교관, 국방성 참모부에서 근무하고, 21,900여 명은 방공대와 훈련병이다. 민병군의 주축은 예비군으로 171,000여 명이며, 동원 시는 합동군을 포함해서 19.7만여 명으로 완전 편성된다. 지상군(육군)은 122,000여 명으로 평시 현역은 없다. 공군은 대공 및 기지방호부대 포함 26,000여 명의 민병군으로 편성되며, 그 외

13) Halbhook, *op. cit.*, p.18.

14) Marko Milivojevic, “The Swiss Armed Forces”, *Swiss Neutrality and Security: Armed Forces, National Defence and Foreign Policy*(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p.14.

15) 2011년 한국을 방문한 스위스 국방장관은 “사병의 경우 직장에서 일하면서 만 34세까지 군복무를 하는데 21주의 입소 기본훈련을 마친 후 매년 3주간 새벽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동원훈련을 받고, 매주 1~2회는 야간전투훈련을 하며, 사격명중률 목표를 달성해야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효율적인 군사훈련과 유사시를 위해 200만여 명의 실전용 총을 각 가정에 보관하고 있다. 스위스군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chosun.com, 2011.7.26)

16) 개인적, 종교적 사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사를 통하여 민간공익사업에 투입하는 공익근무제도를 운용한다. 이들은 난민보호, 청소년 선도, 민방위업무 지원, 자연재해 복구지원, 해외파견근무 등을 수행한다.(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앞의 책, p.834)

17) IISS(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1*(London: Arundel House. 2011), p.150.

군수·지원조직 23,300여 명이 있다.¹⁸⁾ 민병군 장비는 비록 수량은 많지 않으나 신예장비로 다음과 같다.

〈표-1〉 스위스군의 주요 전투장비

구분	전차	장갑차	포병화기	미사일	항공기	헬기
수량	344	446	498	110	158	59
비고	Leopard II	Eagle II	자주:200	TOW	전투기 54 지상공격기 33	

출처: IISS, *The 2011 Military Balance*, pp.150~151.

민병군에 대하여 1927~1937년간 주 스위스 대사를 지냈던 미국인 윌슨(Hugh Wilson)은 “스위스 국민들은 가정에 군복과 총을 갖고 있으며 즉시 동원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은 일요일 외국인들이 골프나 낚시로 휴식하는 동안, 많은 시간 친구들과 함께 특등사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연습하면서 보낸다.”고 하였다.¹⁹⁾ 정부는 사격 시 염가로 실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20만여 명이 주말 사격대회에 참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가 열리기도 한다.²⁰⁾

스위스에서는 냉전종식 이후 한때 일부 조직들이 군대폐지를 주장하였었지만 수차례의 찬반논의와 국민투표 끝에 다수 국민들의 반대로 폐기되었다.²¹⁾ 여전히 국민들 다수가 무장중립을 선호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구)소련 해체 등 전략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스위스군은 2004년부터 ‘Army XXI’이라는 군 개혁으로 부대와 민병군의 규모를 조정하면서²²⁾ 21세기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

18) *ibid.*, pp.150~151.

19) Halbrook, *op. cit.*, p.27.

20) [http://en.wikipedia.org/wiki/Gun-Politics in Switzerland](http://en.wikipedia.org/wiki/Gun-Politics_in_Switzerland)(검색일: 2012.7.4)

21) [http://en.wikipedia.org/Group for a Switzerland without Army](http://en.wikipedia.org/Group_for_a_Switzerland_without_Army)(검색일: 2012.7.19). ‘군 없는 스위스를 만들기 위한 그룹’은 1982년에 조직되어 스위스에서 군대를 폐지하기 위한 국민투표 제안과 무기획득 반대, 파병금지 등 다양한 활동을 수차례 하였다. 그러한 활동 결과 1989년 국민투표에서 35.6%(105만 명)의 투표자가 이에 찬성하였지만 부결되었다.

22) [http://en.wikipedia.org/Military of Switzerland](http://en.wikipedia.org/Military_of_Switzerland)(검색일: 2012.7.20)

둘째, 민방위(Civil Defence)의 중요성이다. 민방위는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핵을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보장을 위하여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은 냉전시대로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가 대립되어 시민보호 대책으로 시작된 것이다.²³⁾ 민방위를 위하여 정부는 3가지 의무사항을 규정하였다.²⁴⁾

첫 번째는 민방위 시설설치로, 주택이나 건물을 대규모로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시 피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두 번째는 26개주²⁵⁾에 있는 3,000여 개의 지역사회가 민방위조직을 갖추고 장비를 준비하며 훈련을 통하여 재해와 재난, 재래식이나 핵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구호와 구조, 치료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세 번째는 민방위대 편성으로 20~60세의 남성 가운데 병역의무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편성된다.

2011년 한국을 방문한 국방장관은 “스위스에 있는 모든 주택과 빌딩 가운데 95%는 지하 방공호가 설치되어 있고, 핵 공격과 핵 오염에 수개월간 버틸 수 있는 축구장 크기의 지하 방공호가 3만 5,000개가 넘는다. 전국에 공공 대피소도 27만여 개가 있다”고 하였다.²⁶⁾ 이렇게 준비된 대피시설은 전 국민의 114%를 수용할 수 있으며, 지하에 병원은 물론 지휘시설들도 있다.²⁷⁾

셋째, 유사시 전시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경제방위(Economic Defence)의 준비와 역량 강화이다. 내륙·산악국가인 스위스는 평시 식량의 자급자족이 곤란하여 수입에 많은 의존을 하며 석탄과 석유 등 부존자원도 부족하다.

23) Hans Mumenthaler, “Civil Defence: Means for Disaster Relief”, *Swiss Neutrality and Security: Armed Forces, National Defence and Foreign Policy*(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p.49.

24) *ibid.*, pp.52~54.

25) 스위스는 26개주(Kanton)가 있고 그중 6개는 반주(Halbkanton)이다. 반주는 원래 하나의 주에서 역사적 이유 등으로 분리된 주를 말한다.

26) chosun.com(2011.7.27일자) “스위스 힘의 비결은 중립과 국방력”(검색일: 2012.7.11)

27) http://en.wikipedia.org/wiki/Military_of_Switzerland(검색일: 2012.6.20)

1930년대 당시 자원과 식량의 수입은 매년 750만 톤에 달하였으며, 그 중 120만 톤은 해외에서 수입해야만 할 정도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²⁸⁾ 이런 취약점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2년 전인 1937년부터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반 준비를 시작하였다.

1938년 1월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수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시 긴요한 품목이면서 국가와 국민경제에 필요한 특정한 물품들은 회사가 수입해서 6개월분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⁹⁾ 이는 전시 경제붕쇄, 국내정세의 혼란 등에 대비하여 정부와 군, 민간이 일정 기간 동안 수입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비축된 물자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평소보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³⁰⁾ 특히 전시에는 주변상황에 따라 무역이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경제에서 중립이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비상상황에 대비, 정부, 기업, 가정에는 식량과 석유 등 전략물자(戰略物資, Strategic Materials)를 비축하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며 유사시 신속히 전시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다양한 민족을 단결시키는 정신방위이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 중 스위스에는 몇몇의 나치 전위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조직은 나치독일식 복장과 완장을 차고 행동하는 국가전선(National Front)으로, 1939년 약 4만여 명이 활동하였다.³¹⁾ 그중에는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나치와 은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선전전파 스파이 활동, 국가 전복활동 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온상이 되어, 전쟁이 발발하면 파업을 하거나 국가전복 활동을 하는 친독일 조직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28) Urs Schwarz, *The Eye of the Hurricane: Switzerland in World War Two* (Colorado: Westview Press, 1980), p.67.

29) Costance Howard, "Switzerland 1929~1946", *The War and The Neutral*(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p.204.

30) 황재국, 『세계각국의 비축제도』, 서울: 비상기획위원회, 2000, 108쪽.

31) Schwarz, *op. cit.*, p.7.

또한 독일은 전쟁기간 스위스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하여 신문과 방송, 나치 전위조직을 이용하여 다양한 선전전을 하였다. 스위스로서는 이를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신방위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정신방위(Spiritual Defence)’는 ‘나치에 대항하여 스위스의 독립과 민주헌법을 지키기 위한, 스위스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졌던 정치적 의지’를 의미한다.³²⁾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는 스위스로서는 단결과 조화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필요하며 이를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였는데, 정신방위는 이런 환경에서 출발하였다.

국민들의 정신방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스위스의 탄생기원과 독립을 보여주는 기념관을 설립하여 국민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정신방위를 강조하는 상징물도 설치되어 국민들의 희생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언론가와 역사학자, 법률가 등 저명인사들도 스위스의 전통적 가치를 지적하면서 정신방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도 스위스에서 정신방위는 여전히 국가방위의 중요한 요소이다.

3. 제2차 세계대전시 스위스 방위전략

1)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스위스에 대한 군사위협

1929년 미국 뉴욕시장의 주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대공황으로 전 세계 경제는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이를 시작으로 1930년대 공황이 한창일 무렵, 독일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베르사유 체제에 대한 불만을 이용하여 1933년 선거에서 히틀러(Adolf Hitler)가 주도하는 나치

32) [http://wikipedia/Swiss History of Military](http://wikipedia/Swiss_History_of_Military)(검색일: 2012.5.20)

(NAZI)당이 제1당이 되었다.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국제연맹 탈퇴(1933.10), 징병제 부활 및 재무장 선언(1935.3) 등으로 서서히 긴장을 조성하였다. 히틀러는 앞으로 “4~5년 동안 국방력 증강을 위하여 온 힘을 쏟겠다.”고 1933년 2월 공약을 한 바 있는데³³⁾, 후속된 조치들이 국방군(Wehrmacht) 전투력으로 나타나면서 베르사유조약의 군비조항 통제로 위축되어 있었던 독일군의 전투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히틀러의 이러한 조치에 영국과 프랑스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자 히틀러는 이른바 잠식전술(Piece Meal Tactics)을³⁴⁾ 구사하여 오스트리아를 독일과 인종, 언어, 문화가 같다는 이유로 합병(1938.3)하였고, 이어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란트(Sudetenland)에도 300만여 명의 독일인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합병(1939.3)하였다. 이는 1938년 9월 28일, 영국 수상 체임벌린(Neville Chamberlain)이 독일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Benito Mussolini), 프랑스의 달라디에(Edouard Daladier)와 함께 뮌헨에서 4자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체코 영토의 1/3에 해당되는 수데텐란트를 독일에 넘겨주는 대신 히틀러로부터 “앞으로 모든 국제적 분규는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라는 뮌헨협정(Munich Agreement)에 기인한 결과이다.

1939년 8월 30일, 독일은 폴란드에 침공할 구실을 찾기 위해 13개 조항의 최후통첩을 보냈으며, 9월 1일 전격적으로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다.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군은 1940년 4월, 중립국인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하여 점령하였고, 5월에는 전격적으로 프랑스를 침공하면서 마지노선(Maginot Line)을 최고의 방위선으로 자부하였던

33) 이언 커쇼 지음, 이희재 옮김, 『히틀러II: 몰락 1936~1945』, 서울: 교양인, 2010, 22~24쪽.

34) 목표를 일괄적, 급진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제한된 소규모의 무력이나 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성과를 계속적으로 획득, 누적함으로써 기도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전술(육군사관학교, 『세계전쟁사』, 서울: 도서출판 황금알, 2007, 270쪽)

프랑스마저도 개전 6주 만에 허무하게 항복하였다.

유럽대륙에서 독일군의 승승장구와는 달리 영국이 처칠 수상의 지도아래 끝까지 항전하자 독일군의 전선은 영국 본토에 대한 폭격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영국과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도 전에 이를 중단하고 이른바 ‘생활권(Lebensraum)’을 실현하고자 1941년 6월 22일 바바루사 작전(Barbarossa Operation)으로 소련을 공격하였다.

독일군은 소련침공 작전을 단기간에 끝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 정벌에서 왜 패배하였는지 그 교훈(冬將軍, 진흙將軍)과 유명한 학자인 조미니(Anthonie H. Jomini)가 말한 바 있는 “러시아는 들어가기는 쉬운 나라이나 나오기는 힘든 나라”라는 지적도 잊은 채 겨울피복은 물론 윤활유, 부동액 같은 동계작전 준비도 소홀히 하였다.³⁵⁾

개전초기 독일군은 동부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으나 스탈린그라드 전투(1942. 8~1943. 2)의 패배가 공세 종말점이 되었으며, 히틀러의 예상과는 달리 작전이 장기화되면서 보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운데 장병들은 혹한에 노출되어 수많은 병력이 동사 또는 동상으로 전투력을 상실하였고, 장비는 동파되면서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급속한 전력손실을 가져왔다.

연합군이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성공하여 독일을 향해 진격하고, 1943년 8~9월 이탈리아에 상륙한 연합군도 북쪽을 향해서 진격하는 한편, 소련군도 반격으로 나오면서 동·서·남 3방면으로부터 협공을 받아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던 나치는 선전상 게벨스를 ‘총력전 최고사령관’으로 임명, 국민돌격대(Volkssturm)를 창설하고³⁶⁾ 국민전투기(He-162, Salamander)를 제작해서 가미가제(神風)식 자살특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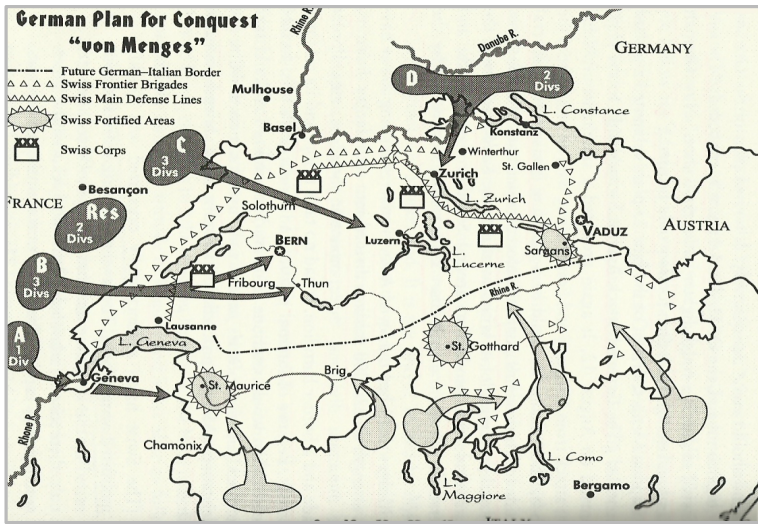
35) Jurgen Foster, From “Blitzkrieg” to “Total War”, *A World at Total War: Global Conflict and the Politics of Destruction, 1937~1945*(Washington D.C.: Cambridge University, 2010), p.98.

36) 끌로드 다비드 지음, 홍순호 옮김, 『제3제국의 전체주의』, 서울: 학문과 사상사, 1981, 144쪽.

전술을 구사하는 등 총력적 저항을 시도하였다.³⁷⁾ 그러나 연합군이 베를린을 포위·압박하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던 히틀러가 자살(1945.4.30)하고, 독일이 무조건 항복(1945.5.8)함으로써 유럽지역의 전쟁은 끝났다.

전쟁기간 내내 독일군의 스위스 침공 가능성은 지속되었다. 육군참모총장 할더(Franz Halder) 장군에 의하면 “스위스 침공을 강력히 요구하는 히틀러의 노여움어린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야만 하였다”고 할 정도로 히틀러는 전쟁기간 내내 스위스 침공계획을 요구하여³⁸⁾ 실제로 수차례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림-1〉 독일군의 스위스 침공계획(멩게스 계획)



첫 번째 침공계획은 1940년 6월 멩게스가 작성한 것으로, 독일군은 스위스 북부와 서부에서, 이탈리아군은 남부에서 스위스를 전격적으로 침공하는 것이었다. 그는 스위스가 6개 보병사단, 3개 산악사단, 3개 산악

37) 존 콘웰, 김형근 옮김. 『히틀러의 과학자들』, 서울: (주)웅진 싱크리, 2008, 472~473쪽.

38) <http://en.wikipedia.org/wiki/Operation-Tannenbaum>(검색일: 2012.7.25)

여단, 1개 국경수비여단과 1개 대대로 방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³⁹⁾ 그러나 이 계획은 시행되지 않았다.

두 번째 침공계획은 '타넨바움 작전(Tannenbaum Operation)'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휴전한 이후부터 암호명 '타넨바움'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1940년 10월 7일 완성된 계획이다.⁴⁰⁾ 이 계획은 독일군 21개 사단과 소수의 이탈리아군 사단이 동원되므로 독일군 참모본부에서 비현실적이라 판단하여 규모를 반으로 줄인 계획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도 실행되지는 않았으며, 그 후에도 몇 가지 계획이 추가적으로 수립되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한편, 독일군의 스위스 영공침입은 개전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스위스군은 총 210여 대의 항공기와 300여 명의 조종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개전초 독일군과 프랑스군 전투기들이 프랑스 영공에서 공중전을 벌이면서 가끔 스위스 영공을 침범하였다. 5월에는 113회, 6월에는 84회 영공침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1940년 12월 바젤과 취리히에, 1941년 9월에는 국경의 작은 부락에, 1943년 5월에는 취리히와 바젤에 연합공군의 폭격이 가해졌다. 독일과 이탈리아를 폭격하러 가는 도중에 오폭을 한 것이다. 이후 스위스 영공침입은 더욱 빈번해졌다. 1944년 4월 1일 50여 대의 미 공군 폭격기가 실수로 독일과 인접해 있는 국경도시인 샤프하우젠市에 420톤의 폭탄을 투하하는 중대한 사태도 발생하였다.⁴¹⁾ 당시 스위스 외무장관은 이 폭격이 '잘 계획된 정밀폭격'이라고 항의하였지만, 연합군은 흐린 날씨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⁴²⁾

이와 같이 독일군의 지상공격은 물론 독일공군과 연합공군의 스위스 영공침입과 스위스 영토에 대한 폭격은 전쟁기간 내내 발생하였다.

39) Halbrook, *op. cit.*, p.133.

40) <http://en.wikipedia.org/wiki/Operation-Tannenbaum>(검색일: 2012.7.25); Schwarz, *op. cit.*, p.61; Halbrook, *op. cit.*, p.136.

41) Denis J. Foder, *The Neutrals*(Virginia: Time Life Books Inc, 1981), p.57; http://en.wikipedia.org/wiki/History_of_the_Swiss_Air_Force. (검색일: 2012.6.30)

42) Howard, *op. cit.*, pp.224~225.

2) 스위스의 대응전략

1933년 히틀러 집권 당시 나치 이론가 중의 한 명이었던 반세(Ewald Banse)는 만약 독일군이 프랑스를 공격한다면 북쪽에서는 중립국 네덜란드와 벨기에, 남쪽에서는 스위스를 경유하여 공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울러 스위스는 쉽게 이길 수 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하였다.⁴³⁾

이러한 독일군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여 스위스는 외교전략과 군사방위 및 경제방위, 정신방위 등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하였다.

첫 번째 외교전략이다. 스위스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8월 31일,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40개국에 통보하였다.⁴⁴⁾ 이에 대해 영국은 스위스의 중립을 존중하고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베른주재 독일공사도 스위스 외무장관을 방문하여 독일은 스위스의 중립을 보장할 것이라고 하였다.⁴⁵⁾

그러나 스위스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 벨기에가 독일군에 침공을 당하였던 기억을 상기하여 인접한 프랑스와 비밀리에 군사교류를 하고 있었다. 스위스군의 고급지휘관과 참모들이 프랑스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여 고급장교를 만났으며, 군사협정도 맺었던 것이다.

스위스군 당국은 독일군이 공격을 한다면 독일과 프랑스의 중부 국경선지역은 이미 마지노선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부의 스위스 국경지대와 북부의 벨기에 국경지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독일군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여 프랑스군과의 군사협력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독일군에게 노출되면 스스로 중립국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43) Halbrook, *op. cit.*, pp.23~24.

44) Schwarz, *op. cit.*, p.11.

45) Howard, *op. cit.*, p.208.

있는 중요한 정치·외교적 문제이므로 신중을 기하면서 보안을 유지해야만 하였다.

4월에 프랑스군의 초청으로 스위스군의 공식 대표단이 마지노선을 방문하였다. 스위스군 대표단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독일군의 침공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의 전투준비태세가 미흡한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다. 당시 프랑스군은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고급장교들의 전력증강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차이로 집행하지 못하여 그대로 남다보니 노후화되었고, 훈련수준은 저조하였다. 노동현장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노동자들의 이적행위도 발생하였다. 항공기 제작사에서는 항공기가 이륙할 시 추락하도록 연료공급장치를 고장나게 만들었는가 하면, 막 생산된 전차가 운반되는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되도록 다른 부품을 끼워 넣기도 하였다.⁴⁶⁾

이러한 사항은 영국이나 미국의 대표단들에게도 그대로 관찰이 되었다. ‘가짜 전쟁기간(Phony War)’⁴⁷⁾ 동안 프랑스 정부와 군은 미국과 영국의 고위관료는 물론 파리주재 무관까지 마지노선에 초청하여 프랑스의 방위가 굳건함을 보여주려 하였다. 오히려 영국군 브룩(Alan Brooke) 장군은 프랑스군의 군기와 사기가 형편없고 긴장감이 해이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⁴⁸⁾ 이러한 프랑스군의 준비태세는 스위스에 경각심을 주어 전쟁이 임박해지면서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선언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국경지대의 방위력을 갖추고 민병군을 동원하는 등 대응전략을

46) 알란 세퍼드 지음, 김홍래 옮김, 『프랑스 1940』, 서울: 도서출판 플래닛 미디어, 2006, 39~40쪽.

47) Richard A. Preston & Sydney F. Wise, *MIN IN ARMS*(New York: Prager Publisher, 1970), pp.296~297. 미국의 한 기자가 한 말로, 독일군이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하자 2~3일 뒤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국이 독일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점령된 그해 9월부터 프랑스를 침공하는 1940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서로 대치하여 전투는 하지 않고 ‘눈싸움(Eye War)’만 하고 있었던 기간을 말한다.

48) J. E. Kaumann and H. W. Kaufmann, *Fortress France: The Maginot Line and French Defence in World War II*(Connecticut: Prager Security International, 2006), pp.151~152.

구사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군사방위전략이다.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부터 스위스는 군사적인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었다. 8월 28일 국경경비대원들이 소집되었고 연방의회는 바로 전날 기상(Henri Guisan) 장군을 헌법에 따라 스위스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기상 장군은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독립이 중립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독립이 없으면 보호할 중립도 없다고 하면서 스위스의 독립유지에 대한 위협은 독일로부터 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⁹⁾ 또한 “국민이 군대이고, 군대가 국민이다, 군복을 입으면 사회적인 차이 없이 모두가 동등하며, 가난한자와 부자, 노동자와 고용주, 도시와 농촌의 거주 구분도 없이 모두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만 있다”⁵⁰⁾고 하면서 저항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였으며, 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1938년 독일군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는 것을 보면서 경제부장관은 “우리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하는 사람들은 친구이지만 우리의 독립과 정치적 통합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그들의 군은 결의도 보여주었다.⁵¹⁾

1939년 8월 31일,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날 연방정부는 총동원을 시작하여, 1940년 여름 기상 장군의 통제아래 무려 전 인구 420만여 명 가운데 50만여 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고 있었다.⁵²⁾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25년 만에 내려진 총동원 명령으로,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기 36시간 전,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기 41시간 전에 이미 완전 동원한 것이었다.⁵³⁾

49) Peter Calvo-coressi and Guy Wint, *Total War: Cause and Courses of the Second World War*(New York: Penguin Books, 1979), p.248.

50) Halbrook, *op. cit.*, p.61.

51) Edgar Bonjour, *Swiss Neutrality: Its History and Meaning*(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52), pp.119~120.

52) Milivojevic, *op. cit.*, pp.15~16.

53) Foder, *op. cit.*, p.47.

독일군이 프랑스를 공격할 당시, 로마주재 스위스 국방무관은 이탈리아군의 고위직에 있는 친구로부터 독일군 침공 가능성을 경고받았다. 스위스군 정보국은 30여 개의 독일군 사단들이 라인강 북부 독일과 스위스 국경 사이에 집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강의 북부 언덕에서는 교량건설용 자재들도 관찰되었다.⁵⁴⁾ 이런 움직임으로 스위스군은 독일군이 라인 강을 건너 스위스와 마지노선을 우회하여 프랑스를 공격할 것으로 파악하였다.⁵⁵⁾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43만 5천여 명의 민병군 3개 군단과 기타 부대들이 국경선의 방어진지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기상 장군은 독일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북동 및 북서지역에 국경수비대 민병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10만여 명의 국경수비대 민병군은 국경선 참호진지에서 대부분의 민병군들이 동원되는 시간까지 독일군 공격속도를 지연시키는 전략도 구상되었으며⁵⁶⁾, 그들은 라인 강의 교량, 독일, 스위스를 연결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통로는 거부를 위하여 폭파할 준비를 하고 철조망과 지뢰지대를 설치하였다.⁵⁷⁾ 동시에 독일에서 스위스를 경유하여 이탈리아에 이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알프스의 3개 통로에 접근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하였다.⁵⁸⁾

연방정부와 군은 전 민병군들에게 독일군의 기습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요령도 하달하였으며, 모든 장교와 준사관들은 가까운 부대에 소집되어 소총과 실탄을 휴대하라고 지시하였다. 아울러 36~48세 남자들을 소집해서 6일간 훈련을 하도록 승인하였고, 2개월분의 비상식량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현대화된 포병장비가 부족하여 1882년 이후 사용된 적이 없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장비들을 정비한 후 재배치하였다.⁵⁹⁾ 알프스 산악지역에서 전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3주간의

54) Schwarz, *op. cit.*, p.26.

55) Foder, *op. cit.*, p.49.

56) *ibid.*, p.30.

57) Schwarz, *op. cit.*, p.3.

58) *ibid.*, p.4.

59) Schwarz, *op. cit.*, p.9.

훈련코스가 만들어지고, 유능한 스키어와 등산전문가들이 교관으로 임명되어 훈련을 지도하였으며, 산악지역 숙영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악천후에서 무기를 조작하는 방법, 산악에서 생존하면서 침투한 적을 격멸하는 전술도 배웠다.⁶⁰⁾

또한 민병군 병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후방지역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부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40년 4월 29일, 기상장군은 여분으로 남아 있는 구식총기를 이용하여 민병군 외의 지원자들로 구성된 20만여 명의 지역방위대(Ortswehren)를 창설하였으며⁶¹⁾, 전 지역에서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였다. 지역방위대 편성과 동시 정부도 약 2.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철조망 등의 장애물과 기관총 진지, 벙커 등을 구축하였다.⁶²⁾

이러한 모습에 대해 「뉴욕 타임즈」는 “수천~수만의 노년층과 여성, 어린이들이 지역방위를 위하여 총과 40발의 실탄을 휴대하고 배치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당시 종군기자 쉬리는 “스위스는 전 국민의 1/10을 넘는 인원들이 무장하고 있고,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⁶³⁾라고 스위스의 전국적인 동원상황을 보도하였다.

프랑스가 독일군에 항복하고 휴전에 들어간 이후 히틀러는 영국정부에 평화제의를 하였으나 처칠이 거절하자 영국을 폭격할 목적으로 ‘바다사자 작전(Sea Lion)’을 준비하고 있었다.(영국본토에 대한 폭격은 8월 10일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상전을 하지 않고 있었던 육군은 언제라도 스위스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었던 시기인 7월 25일, 기상 장군은 비밀리에 군단장으로부터 대대장에 이르기까지 650여 명의 장교를 집결시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⁶⁴⁾

60) Foder, *op. cit.*, p.42.

61) Halbrook, *op. cit.*, pp.106~107.

62) Foder, *op. cit.*, p.36.

63) Halbrook, *op. cit.*, p.82.

64) Schwarz, *op. cit.*, p.53.

“나는 오늘 스위스 독립의 상징적이자 역사적인 장소인 이곳 뤼틀(Rütli)에서 스위스가 처하고 있는 상황의 위중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모이게 하였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있으며, 스위스의 생존은 경각에 달려 있다.”⁶⁵⁾ “1939년 연방의회는 군에 수백 년이나 된 국가의 독립을 지키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 독립은 지금까지 존중되어 왔지만,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독립을 끝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 (중략) 우리 모두가 강철과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성공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우리의 힘을 신뢰하자.”⁶⁶⁾

기상 장군은 뤼틀에서 장교들에게 나치 독일의 정치와 경제, 군사 및 심리적 압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 및 심리전이 군사방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총력방위를 요구하였다.⁶⁷⁾

또한 독일군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여 새로운 방위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스위스 산악지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동쪽의 사르간스(Sargans) 요새로부터 서쪽의 생 모리스(St. Maurice)까지 산악 진지를 점령하는 것이다. 동시에 남부부터 북부의 방어선이 알프스 둘레를 감쌀 수 있는 형태를 만들고, 중앙의 산. 고타르트(St. Gotthard) 지역에 구축되어 있던 지하시설들은 연료와 탄약저장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은 알프스 산악의 이점을 이용하여 방어하면서 국토의 반과 인구의 3/4, 연방 수도인 베른과 취리히, 바젤 같은 대도시를 과감히 포기한다는 것이다.⁶⁸⁾ 알프스 요새화를 위해 높은 지대에 중화기를 설치하였고, 병력과 장비, 탄약을 운반하기 위해 100회선 이상의 케이블도 설치되었다. 바위틈 공간에는 식량, 무기, 탄약을 비축하였으며, 독일과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주요교량과 터널 등은 필요시 폭파할 준비도 하였다.⁶⁹⁾

65) Halbrook, *op. cit.*, p.1

66) Schwarz, *op. cit.*, pp.5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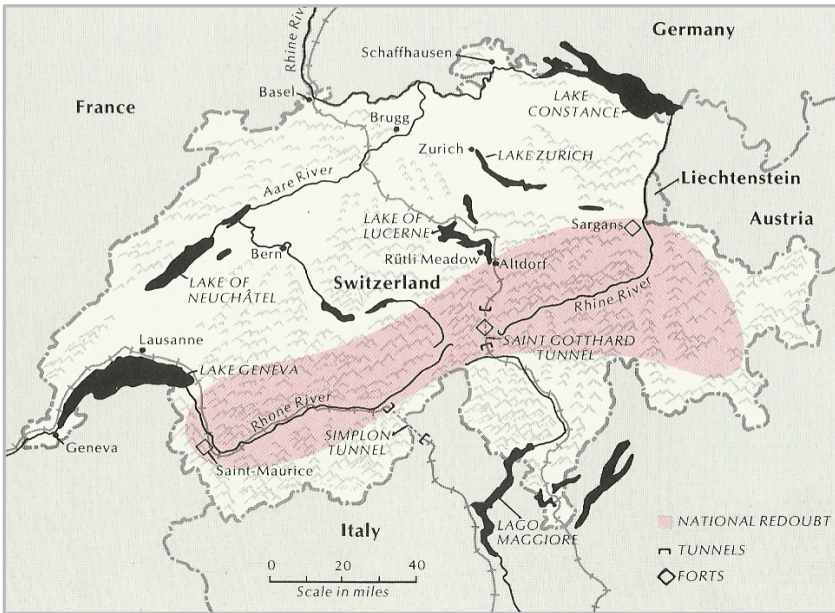
67) Milivojevic, *op. cit.*, p.16.

68) Schwarz, *op. cit.*, p.49.

69) Foder, *op. cit.*, p.40.

이렇게 준비된 계획은 알프스 ‘요새화 계획(National Redoubt)’이라고 불렸다. 여기서 ‘Redoubt’ 의미는 적의 공격 또는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만든 보루(堡壘) 또는 요새(要塞)란 의미로, 알프스 산악을 이용하여 구축한 방어지역을 말한다.⁷⁰⁾

〈그림-2〉 알프스 요새화 계획



출처: Foder, *The Neutrals*, p.50

기상 장군은 알프스 산악지역에서 동굴과 빙하 등의 공간이나 탄약고 등에 식량과 탄약을 비축하고 특별히 훈련된 산악부대들을 이용한다면 장기간 저항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⁷¹⁾

세 번째는 경제방위 전략이다. 1940년 6월 중순이후, 완전히 추축국으로 둘러싸여 수입이 차단되면서 식량사정이 악화되자 두 달 동안 거래를

70) Bonjour, *op. cit.*, p.122; Halbrook, *op. cit.*, pp.121~122.

71) Foder, *op. cit.*, p.50.

금지하면서, 10월 초부터 쌀과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을 배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지면적이 제한되어 평시에 식량을 비축하여 전시 및 비상시기에 배급하더라도 장기화되면 국민의 생존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으므로, 가용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자급자족 대책을 강구하였다. 1939년 4월, 식량생산 증대를 위하여 정부관료와 취리히 대학의 발렌(F. T. Wahlen) 박사 등의 학자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 끝에 1940년 11월 ‘발렌 계획(Wahlen Plan)’이 수립되었다.⁷²⁾

이 계획이 시행되면서 4년간 농지가 두 배로 확대되어 감자 재배용 농지는 100% 늘어났고 밀과 채소용 경작지도 증가되었다. 경지면적의 확대는 습지대 물 제거와 삼림 벌목으로 가능해졌으며⁷³⁾, 시민들은 학교 운동장, 축구장, 공원, 도로가, 철길제방, 정원 등 이용 가능한 모든 토지에 감자, 콩, 토마토,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⁷⁴⁾

〈표-2〉 품목별 배급제 적용시기

품 목	배급제 적용시기
설탕, 파스타, 쌀, 밀가루, 일부 육류, 옥수수, 식용유 등	1939.10.30
신발, 비누, 피복류, 세정제	1940.12.1
치즈	1941.8.31
계란, 계란관련제품	1941.12.3
육류	1942.3.
벌꿀, 잼, 저장과일류	1942.4.4.
신선한 우유: 성인5dl(1942.1.1), 어린이: 7dl(1942.12.1)	

스위스는 고 정밀도의 기계, 시계, 봉제제품,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발전시켰지만, 모든 재료와 연료는 수입에 의존하였는데 대부분

72) Howard, *op. cit.*, p.218.

73) Schwarz, *op. cit.*, p.71.

74) Howard, *op. cit.*, p.218.

독일에서 수입하였다. 당연히 전쟁 상황에 따른 수입량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하여 대책이 강구되었다.

먼저 금속재료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부존자원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였다. 무기제작에 긴요한 망간을 알프스 산지에서 탐사하여 채굴하였고, 폐기된 광산을 재개발하여 고품질의 망간도 24,000톤 생산할 수 있었다.⁷⁵⁾ 아울러 정부는 간판이나 가옥건축 등 전쟁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철강의 사용을 강력히 통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절약된 철강이 많지는 않았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연료를 절약하였다. 겨울에 난방용 유류 할당량을 대폭 줄였고, 개인이 보유하는 자동차는 긴급목적 외 사용을 강력히 통제하였으며, 군 작전도 가급적이면 말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자원도 개발하였다. 연료가 부족해지자 공군이 후원하여 비행기용 화학추진제를 개발하였고, 석탄과 석회암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연료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전쟁기간 중 10만여 톤을 생산하여 그 양이 많지 않았으나 절대적으로 연료가 부족하였던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군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⁷⁶⁾

네 번째는 정신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후에 스위스에는 나치의 지원을 받는 조직이나 자생적 조직 등 나치의 전위조직과 공산당 조직들이 활동하면서 스위스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연방정부를 비난하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스위스 전복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1938~1939년의 오스트리아와 체코 합병, 그리고 폴란드 침공을 지켜본 연방정부는 당시 나치독일에 대한 공포심으로 오랫동안 나치 전위조직들의 활동을 묵인하고 있었다.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 일부는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선전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모임과 선전간행물 발간 허용, 체포된 조직원의 석방과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75) Schwarz, *op. cit.*, p.74.

76) *ibid.*

요구에도 정부는 한동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였다.⁷⁷⁾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마침내 연방정부는 나치 전위조직들을 해산하고 출판물 발간을 중지시켰으며, 활동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1939~1940년 문제가 되었던 분열상을 극복하기 시작하였다.⁷⁸⁾ 1940년 5월 28일 공포된 법령에서는 모든 형태의 파업을 하는 사람들은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조치하였다. 군사기밀을 폭로하는 행위, 반란죄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발표되었으며 전쟁기간임을 감안하여 그 절차는 대폭 간소화되었다.⁷⁹⁾

이와 같이 스위스는 독일군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비밀리에 프랑스와 교류를 통해 대비하였으며, 민병군을 동원하여 대응하는 군사적 대비태세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추축국으로 둘러싸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자 발렌계획을 만들어 극복하였으며, 나치 독일의 심리전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정신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하였다.

4. 독일군 침공 억제의 실효성

나치독일의 스위스 침공 가능성은 여러 차례 있었고, 이를 위한 계획도 수차례 검토되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스위스가 전쟁의 발발을 억제하면서 독립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방위전략의 가시적인 성과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77) Howard, *op. cit.*, p.214.

78) Schwarz, *op. cit.*, p.8.

79) Howard, *op. cit.*, p.21.

1) 중립국 제약을 극복한 정치·외교적 성과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이라고 하면서 정치와 군과 국민의 역할을 구분하고, 전쟁의 목적은 정치인이 정하지만 전쟁의 수행은 군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히틀러가 군 지휘부의 건의를 무시하고 시종일관 직접 전쟁을 지휘하면서 무적 독일국방군의 신화가 무너지고 결국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소련의 스탈린도 집권초기에는 자신이 정치와 군사를 모두 간섭하였으며, 군 지휘관을 대량으로 숙청하였고, 전쟁초기단계에는 군사작전을 일일이 간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오를 인식하면서 추이코프 장군에게 전쟁지휘를 일임하여 스탈린그라드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결국은 승전국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국가(군사)지도자의 전시 역할은 중요하다.

스위스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기간 중 전시 중립국의 취약한 입장을 경험한바, 전쟁발발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각 분야에서 대비하면서 동시에 외교활동에도 전념하였고, 전쟁이 발발하자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기상 장군이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군(軍), 정(政)을 철저히 분리하여 효율적인 억제 전략을 수행하였다.

히틀러가 집권하면서부터 위협을 느낀 정부는 1933년부터 점진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비 소요가 확대되자 1936년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국민들은 정부가 요청하였던 금액(2억 Sfr)보다 많은 3.32억 스위스프랑을 모았다. 경제부장관은 1939년 4월 30일 특별 국방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수년간 이미 10억 스위스프랑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⁸⁰⁾

프랑스와의 비밀 군사협력은 상호 군사적 대응협력의 가시적인 성과 이외에 스위스 대응전략에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프랑스 군의 저조한 훈련수준, 전력증강 우선순위 견해차이로 인한 장비노후,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된 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의 태업은 스위스군 방위준비의 우선적인 과제를

80) Foder, *op. cit.*, p.202.

제시한 것이다.

또 다른 외교적인 성과는 전쟁이 종반기에 접어들 무렵 스위스가 중재하여 이탈리아에 주둔한 독일군의 항복을 연합군에 중재한 것이다. 전쟁 기간 중 미군이 스위스 국경지역에 최초로 도달한 것은 1944년 8월 28일로 1940년 6월 프랑스 패배이후 계속 추축국에 포위된 상태에 있다가 4년이 지나면서 비로소 외부 국가들과의 접촉이 가능해지기 시작하였다.⁸¹⁾ 이 무렵인 1944~1945년도, 독일군이 연합군에 의해 제압되면서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었던 독일군과 스위스군의 정보책임자, 미국의 스위스 주재 전략정보국(OSS)의 책임자 덜레스(Allen Dulles) 사이에서는 이탈리아 주둔 독일군의 항복을 위한 접촉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⁸²⁾ 당시 이탈리아에는 독일군 서남집단군이 케셀링(Albert Kesselring) 장군의 지휘아래 연합군과 전투를 하고 있었다.

1945년 3월 5일, 독일군이 항복하기 두 달 전, 케셀링 원수와 친위대 사령관 볼프 장군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연합군과 항복협상을 위해 볼프 장군을 협상대표로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회담 동기는 이탈리아에서 무의미한 파괴를 막으면서 소련군이 미·영 연합군과 함께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함이었다.⁸³⁾ 볼프는 덜레스를 만나 협상 끝에 케셀링 원수에게 무조건 항복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얼마 뒤 케셀링의 뒤를 이어 비에팅호프(Heinrich von Vietinghoff) 장군이 부임하였다. 4월 23일, 비에팅호프 장군은 연합군에 끝까지 저항하라는 독일군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항복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

81) Howard, *op. cit.*, p.225.

82) Calvo-coressi and Wint, *op. cit.*, p.533. 스위스는 중립국이자 국제기구가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추축국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인 여건으로 수도 베른을 포함한 제네바 등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소련 등 각국으로부터 온 스파이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무대였다. 또한 국민의 다수가 독일계통의 주민이라 나치 스파이들의 활동이 많았으며 친위대 고위급 장교들의 활동도 빈번하였다. 이들은 심지어 스위스군의 최고지휘관들과도 회담을 갖기도 하였는데 스위스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외교활동을 하였다.

83) B. H. Liddel Hart,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II*(London: Williams Clowes and Sons, 1970), p.674.

하면서 볼프 장군을 다시 스위스로 파견하였다. 협상단은 여러 차례 협상 끝에 4월 29일 오후 2시, 서남집단군이 무조건 항복하기로 하는 서명식이 개최되었으며, 5월 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히틀러가 자살(4.30)하였으며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서쪽에서는 연합군이 독일군과 마지막 전투를 하고 있었다. 6일 뒤, 5월 8일에 마지막으로 남은 독일군도 항복하였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2개월의 시간이 지나갈 무렵인 1945년 10월, 나치독일의 전시 위협에 대한 인식과 스위스의 비밀활동을 밝히는 장소에서 연방의회 의장은 스위스의 비밀정보요원들이 독일국방군 최고사령부에서 활동하면서 독일군의 비밀계획을 입수하여 보고하였다고 밝혔다.⁸⁴⁾ 독일군 최고사령부에 중요 정보원을 숨겨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중립국 스위스는 외교적으로는 중립국을 유지하였지만 스위스의 자국 방위를 위해서는 정치·외교적인 노력을 철저히 하였으며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얻은 것이다.

2) 최고사령관의 전쟁지도와 전 국민의 방위태세 동참

아무리 지도자가 훌륭하고 그 역량이 출중하여도 국민이 지도자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특히 스위스와 같이 국력이 크지 않은 국가에서 그것도 추축국과 같이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국민은 민족적 구성이나 언어의 사용이 다르다면, 그래서 그 국가의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라면 이야기는 더욱 달라진다. 그런 스위스에서 독일군의 침공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사령관 기상 장군의 굳은 신념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기상 장군은 프랑스가 항복하자 독일군의 침공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여 뤼틀에서 장교들을 집합시켜 스위스 정신을 일깨워주면서 군이 나가야

84) Halbrook, *op. cit.*, p.235.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 국민에게는 어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강력하게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사기를 고양시키고 의지를 결집시켰다. 스위스 군 장병은 누구도 독일군에 항복할 수 없으며, 죽을 때까지 마지막 한 발의 실탄이 떨어지면 총검으로라도 싸우라고 하였다. 그것은 스위스 국민에게는 총력적 저항을 강조하는 한편, 독일군에 대해서는 침공 시 막대한 피해를 각오하라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였다.⁸⁵⁾

그는 독일군의 의도를 간파하여 독일과 접하고 있는 북부의 평야지대는 희생하더라도 알프스 산악지역을 요새화하고 게릴라전과 장기전으로 국토를 지켜낼 것이며 독일군이 침공하면 알프스를 통과하는 주요 철도와 교량, 터널을 폭파하여 독일군 작전계획을 저지하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이 스위스를 침공해서 얻는 득보다 잃는 것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인식케 하여 침공의도를 단념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독일군이 스위스를 침공하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더불어 길고 값비싼 전쟁이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실제로 기상 장군은 독일군과 연합군의 스위스 영공침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1940년 6월 초 스위스 영공을 침범한 독일군 폭격기 1대가 프랑스와 국경지역에서 가까운 노이샤텔 부근에서 스위스 공군기에 의해 격추되었으며 1대는 피격 후 프랑스 영내로 추락하였다. 이렇게 우연적이든 의도적이든 독일과 연합군은 전쟁기간 중 총 6,501회에 걸쳐 스위스의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스위스 공군에 의해 268대의 공군기가 강제착륙을 당하였고, 16대는 격추되었다.⁸⁶⁾

공군기를 상실한 독일은 격노하였는데, 특히 스위스군이 독일에서 구입한 전투기를 사용해서 독일군 폭격기들을 격추시켰기 때문이었다. 독일은 폭격기들이 실수로 스위스 영공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과와 동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만약 스위스 공군이 계속 공격하면

85) Halbrook, *op. cit.*, p.103.

86) Foder, *op. cit.*, pp.30, 57.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협박도 하였다.⁸⁷⁾ 히틀러는 스위스가 독일 공군 기지를 격추시키는 것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공군기지와 탄약 생산시설 등을 폭파하라고 지시하였다.⁸⁸⁾ 이를 위하여 공군기지와 탄약고 폭파임무를 수행할 팀을 비밀리에 파견하였지만, 기차로 이동 중 스위스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이러한 기상 장군의 적극적인 대응은 히틀러나 독일군 최고사령부가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상장군의 통제아래 무려 전 인구 420만여 명 가운데 1/10이 넘는 인원인 50만에 가까운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군은 전격전(Blitzkrieg)으로 많은 신화를 남기면서 승리하였으나 이러한 전격전은 스위스로 하여금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게 만들면서 ‘전격(번개) 동원’(Lightning Mobilization)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독일군이 선전포고 없이 전격적으로 스위스를 기습 공격할 경우, 방송으로 동원령을 전파하면 민병군들이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가까운 진지로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직된 사격협회에서는 평시 사격연습을 통해 동원 시 별도 사격연습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이렇게 동원된 민병군들이 항공기를 조종하고 야포를 사격하며 철조망과 지뢰지대를 설치하였다. 그들은 국경수비대의 초병으로부터 조종사, 참모 본부의 장교 등 평시 일부의 현역을 유지하는 부대를 제외하고는 어느 부대에서든지 주력이 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독일군은 1940년 5월, 벨기에 침공 시 공정부대원 80명이 벨기에군 1,200여 명이 수비하고 있었던 에벤 에마엘(Eben Emael) 요새에 낙하 침투해서 항복을 받은 적이 있었다.⁸⁹⁾ 프랑스 침공 시 마찬가지로 여러

87) http://en.wikipedia.org/wiki/History_of_the_Swiss_Air_Force(검색일: 2012.6.20)

88) Halbrook, *op. cit.*, p.109; Foder, *op. cit.*, p.53.

89) 폴 콜리어 외, 강만수 옮김, 『제2차 세계대전: 탐욕의 끝, 사상 최악의 전쟁』, 서울: 도서

차례 공정부대들이 먼저 낙하해서 특정목표를 점령하였다. 따라서 스위스도 독일군 침공 시 공정부대가 먼저 낙하 침투할 것으로 우려되었지만, 민병군이 모든 후방지역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병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60세를 넘는 노인들과 청소년, 여자들은 자진하여 동원을 주장하였고,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부대를 편성하고 총과 탄약을 지급하였으며, 그들은 총을 들고 지역방위에 나섰다. 이 부대가 20만여 명의 지역방위대(Ortswehren)로⁹⁰⁾, 그들은 전 지역에서 구식소총을 휴대하고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스위스가 최고사령관의 효율적인 지휘아래 전 국민이 동참하여 총력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자 독일은 민병군과 지역방위대의 총력적 저항으로 발생될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여 스위스 침공을 강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3) 경제방위를 통한 전시 경제 안정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스위스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식량부족이 예견되는 문제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먼저 식량을 포함한 국민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은 단계적인 배급제를 통하여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엄격한 통제를 하였으며, 아울러 배급제도가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스위스가 추축국에 둘러싸여 해외교역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식량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렌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경작 가능한 곳은 모두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간하였으며, 해외로부터 수입하기 위하여 영국으로부터는 해상통행증을 발급받고, 독일군 잠수함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자 선박의 항해위치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

출판 플래닛 미디어, 2008, 120~121쪽.

90) Halbrook, *op. cit.*, pp.106~107; 안성호, 앞의 논문, 52쪽.

이탈리아, 스페인의 주요 항구에는 스위스 관리를 파견하여 수입물자들이 차질 없이 하역되도록 하였고, 운송과정에서 독일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의 교량파괴나 매복 같은 활동으로 차질이 발생하자 이를 극복하면서 국내로 수송하였다.

스위스는 석유는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이며, 그 외에 석탄과 철광석 같은 지하자원도 거의 없어서 모두 수입을 해야만 하였다. 따라서 독일과 무역협정을 통해 부족한 철강을 확보하면서 국내에서도 소비와 사용처를 통제하였다. 또한 생산성이 낮아서 폐기되었던 광산을 재개발하였으며, 석탄을 이용하여 합성석유를 생산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스위스는 식량을 포함한 주요 자원에 대해 해외의존도가 커서 취약하였으나 전쟁기간 내내 추축국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국, 특히 나치독일에 자신의 강력한 의지만을 강요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때로는 유연하게 대응하여 스위스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때로는 강경하게 대응하여 자국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스위스는 전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전쟁기간 중 독일이 스위스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려 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당시 독일 마르크화는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서 사용이 불가능하였지만, 스위스 프랑화는 당시 국제적으로 통화가 가능할 정도로 안정된 화폐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였던 스위스 프랑화를 이용할 목적과 스위스 은행에 맡겨진 약탈자산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활용하고자 침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⁹¹⁾

4) 정신방위로 불법 활동 무력화 및 치안유지

연방정부는 나치 전위조직들과 공산당 조직의 불법적 활동을 초기단계

91) Foder, *op. cit.*, pp.62~63.

에서는 나치독일을 의식하여 강력한 제재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정도를 벗어나자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과감한 통제를 시작하였다.

연방경찰은 나치 전위조직들의 활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도시의 본거지를 급습해서 각종 전단을 압수하고 100여 명을 체포하였다. 또한 전쟁기간 중 군사기밀 절취 등 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17명은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이 가운데 15명은 스위스, 1명은 프랑스, 1명은 리히텐슈타인 사람이었다. 죄수를 수감하고 있는 육군에게는 재판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사형을 집행하도록 지시되었다.⁹²⁾

사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3명의 장교(최고 계급은 소령)와 11명의 준사관도 있었다. 이러한 사형의 집행은 스위스 안보에 위협을 가하였던 사람들에게 눈에 띄만한 예방효과를 가져와 한때 스위스의 안보를 위협하였던 나치 전위조직과 제5열들의 국가에 반하는 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나치와 공산당의 활동을 무력화하면서 치안질서를 확립하였다.

정부가 나치 전위조직이나 공산당 활동을 금지시키자 이에 반발하였던 움직임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으며, 반국가적 행위를 하였던 군인이나 민간인, 외국인 등의 반역자들을 색출하여 신속한 재판을 거쳐 처형한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그만큼 당면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던 적극적인 방위태세에 기인하는 것이다. 나치 선전전에 독립과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조한 정신방위(Spiritual Defence)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들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나치의 위협을 극복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또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던 시기 독일에 대항하기 위하여 스위스 군 중견장교와 사회적으로 저명한 5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국가 저항행동대(L'Action de Resistance Nationale)가 조직된 바 있다.

92) Foder, *op. cit.*, p.53, Schwarz, *op. cit.*, p.117.

이 단체는 독일군이 침공하여 정부의 고위관리나 고위급 장교들이 저항하기를 거부하고 항복하면 그들을 체포하고, 전쟁이 불리하게 전개되면 빨치산이나 게릴라가 되어 독일군에게 끝까지 저항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쟁이 끝날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정부는 정부대로 국가에 위협을 주는 세력을 법적으로 제제하였고, 국민은 국민대로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민병군 장교들도 독일군 침공 시 끝까지 저항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바탕에는 스위스인의 정신방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2차대전시 무장중립국 스위스의 방위 전략 중 적극적인 정치·외교적인 노력과 군사지도자의 확고부동한 의지로부터 국민들의 적극적 저항의지 및 민병군의 동원과 준비태세 유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정신방위전략은 독일의 침공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5. 결론 : 한국에 주는 교훈

스위스가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군의 침공 가능성이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억제하고 독립의 보존과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성공한 사례는 지도자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총력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⁹³⁾

첫 번째, 전시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이다. 스위스는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헌법의 규정에 따라 기상 장군을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그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민과 군을 지도하였다. 독일에게는 침공 시

93) 안성호 교수는 스위스가 제2차대전시 독일군의 침공을 억제할 수 있었던 국방력의 비밀을 ① 지방분권적 연방제와 직접 민주제를 특징으로 하는 헌정에 대한 애국심 ② 민병제를 바탕으로 하는 무장중립제도 ③ 국민의 군에 대한 사랑과 정부의 국민에 대한 사랑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안성호, 앞의 논문, 54~59쪽)

막대한 희생을 각오하라는 경고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리더십은 독일군 침공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금의 한반도 안보현실은 위중하다. 한때 북한과 정치와 경제, 관광 등 교류와 협력이 진행된 적이 있지만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끊임없는 도발로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중북주의자에 의한 국가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억제하고, 여러 억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억제에 실패하여 전쟁이 발발한다면 모든 국력의 요소들을 통합하여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의 건전한 사고와 판단 및 결심 등 강력한 지도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 위기관리를 위한 정치역량의 결집이다. 스위스의 정치권은 민족과 언어, 종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장기화되자 국민의지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강화하였고 법령을 제정하여 정부가 전쟁에서 취할 조치들을 지원하였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다른 의사를 갖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과 같이 국가적 비상사태가 되면 정치권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국민의 의지를 집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전쟁수행의지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어려운 때일수록 정치권이 선도하여 국민의지 결집을 위한 단결과 행동, 법적 지원은 중요한 것이다.

세 번째, 국가비상사태 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지이다. 스위스는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민들이 국방헌금을 목표액보다 초과하여 모금하였고, 민병군으로서 동원의무를 수행하였는가 하면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여성은 지역방위대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원인으로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거나 발발하였다면 국민들에게 많은 의무가 부과되고 권리는 제한되며, 인적·물적 손실로 시련도 있게 마련이다. 수많은 고통이 동반되는 전쟁에서 국민들의 의지는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스위스와 같이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억제하기도 한다. 스위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전쟁을 억제하였듯이,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총력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전쟁양상에서 우리 국민의 적극적 참여의지는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전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의 중요성이다. 전쟁사를 보면 국민생활의 안정은 전쟁의 승패와 직접 연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위스는 전쟁발발 시 당면하게 될 어려움을 예상하여 미리 식량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전쟁이 장기화되자 식량생산 증대계획은 물론 각종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해외서도 수입을 계속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나라는 전시에 대비하여 가정은 가정대로 물자를 준비해 놓도록 충무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수많은 종류의 물자를 품목별로 선정하고 비축해서 국가가 비상상황에 처할 경우 이에 대비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전시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비상대비 차원에서 어떤 품목을 어느 정도 비축해 놓아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전략물자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기관별로 비축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비상시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비축물자는 어떤 기준으로 개인에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도록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많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이적활동 억제이다. 스위스는 전쟁을 전후하여 나치 전위조직이나 공산당 활동이 지나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과감히 제재하였다. 반국가 및 간첩행위를 하는 사람은 간단한 절차를 거쳐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스위스의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전시 반국가 행위를 하거나 간첩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 번째, 예비전력의 조직화와 동원역량 강화이다. 스위스는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수많은 민병군을 동원하여 대비하였다. 그 결과 독일군의 침공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제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현재 스위스는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지만 강한 국가(強小國)로서 무장중립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방에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68년 1·21사태와 푸에블로(Pueblo)호 나포사건을 계기로 예비군을 창설하여 지금은 300만여 명을 조직하였으며, 전·평시 군부대 확장과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한다. 북한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117만여 명의 상비군 외에도 무려 770만여 명의 예비전력을 조직하고 훈련시키며 한반도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스위스의 민병군처럼 예비전력의 조직적 동원준비와 전투역량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평화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을 때 그것은 진정한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스위스는 보여주고 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격언처럼 힘을 갖추지 않으면 자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평시부터 항재전쟁(恒在戰爭)의 자세로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위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고투고일 : 2013. 7. 1, 심사수정일 : 2013. 8. 9, 게재확정일 : 2013. 8. 22)

주제어 : 제2차 세계대전, 무장중립국, 전쟁억제, 방위전략, 군사방위, 민방위, 경제방위, 정신방위

<ABSTRACT>

A Study on the Switzerland defense strategy in the Second World War: It's peculiarities and lessons learned

Kim, Yong-bin

Located in the middle of Europe, a small, mountainous and landlocked nation, Switzerland deterred the First World War and the Second World War by maintaining neutrality. Since Switzerland was surrounded by the Axis powers when the Second World War broke out, German army planned to invade Switzerland several times. In spite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weaknesses, however, Switzerland overcame such obstacles and effectively managed to defend the nation so that she could maintain the neutrality.

The reason why Switzerland was able to maintain the neutrality among various nations was that Switzerland was a nation having not only a special policy of neutrality, but also military forces for the total defense with the strong national leaders.

As the Second World War was on the verge of breaking out, Switzerland clandestinely formed a military entente with France, divided politics and military forces and appointed general Henri Guisan as a supreme commander. The supreme commander inspired the spirit of resistance in military troops by reminding them of the spirit of the founding fathers of the nation. Over one-tenth of people were recruited to defend the national border. Senior citizens over 60, women and the young were encouraged form local militia to protect their areas. The Alps was nominated for a base of resistance by Switzerland. Ammunition and food were also prepared for the prolonged war.

The distribution system was operated and the most of territory was cultivated to increase productivity of agricultural crops. Resources under the

Alps were developed. The organizations which acted to benefit the enemy were strictly punished by law and the rebels were promptly executed. Confrontation strategies which were to deter a war made Switzerland maintain her neutrality and discouraged the Germans to invade Switzerland.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opinion that the military system should be abolished due to the stabl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but the majority insist that the nation should take selective service based on armed neutrality. Government is enforcing the civil defense facilities to be constructed and the military forces to continue training maintaining national conscription system. The Switzerland civil defense system is the most developed system in the world and 7 million people can be evacuated to those civil defense facilities.

Switzerland, an armed neutral nation, and her strategies on deterring a war can be a lesson to Korean people. Given that the Korean Peninsula has always been exposed to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 and possibility that a local conflict can be expanded to the total war, the effort of Switzerland to deter a war can certainly be a lesson to South Korea.

Key Words : The Second World War, Armed neutrality, Deterrence of a war, Defense strategy, Civil defense system, Military defense, Economic defense, Spiritual defense system

